

# 일교차 큰데 꽃망을 터뜨려...나주배 저온피해 비상

### 나주시 "미세살수·빙상팬 가동 온도 관리 철저히 해야" "꽃가루 충분히 확보해 인공수분 횟수 늘려 달라" 당부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 배재배 농가와 나주시가 개화가 빨라지면서 '저온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개화기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배꽃이 동해를 입게 된다. 동해를 입은 배꽃은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맺혀도 발육 부진으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에도 나주시지역은 동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8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배꽃의 만개 시기는 4월 2~3일로 평년 대비 10일, 전년 대비 4일 가량 앞당겨졌다.

문제는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달 중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도 가량으로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점이다. 아침과 낮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개화가 빠르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예방 대응이 요구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과원이 많아 결실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인공수분 횟수를 늘려 적정 착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온 피해 예방의 핵심인 과수·토양 수분 관리와 온도 조절도 당부했다. 갑작스런 저온에 대비해 미

세살수장치와 열풍·빙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갖춘 과원은 충분히 물을 공급(관수)하고, 온도 센서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오작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친환경 연소재나 볏짚 등에 불을 피워 과원의 온도를 높여줘야 한다. 과원 내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배꽃이 없는 수관하부 살수를 통해 땅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유용하다.

개화 직후에는 넉넉히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확보하고 인공수분 횟수를 늘려 충분한 결실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술의 수정 가능 기간은 개화 당일부터 약 3일 이내로 아침이슬이 마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적기다. 작업 후 2시간 내 비가 내릴 경우 다시 인공수분 작업을 해야 한다.

꽃가루 증량제(석송자·소나무 어린 흙씨 가루) 사용 시에는 배꽃 화분의 발아율에 따라 희석 배율을 조절하고, 화분의 발아와 화분관 신장은 온도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15도 이하 또는 35도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월은 올 한



'저온 피해' 우려가 커지자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인공수분 횟수를 늘리고 과수와 토양의 수분 관리, 온도 조절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농민들이 배꽃 인공수분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해 나주배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 로 배꽃 만개 시기 이상저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꽃가루량 확보와 인공수분 횟수를 늘려 적정 착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시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전체 배

재배면적의 52%, 76.2%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상저온에 의해 배과수 1729.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기타 과수 35.9ha, 특용작물(담배) 2.5ha 등 총 1825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시, 에너지특화기업 28개사 선정 '전국 최다'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에서 나주시가 전국 최다 성과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지역내 조성된 '광주-전남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28개사가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에너지 특화기업'을 선정했다.

광주-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울산, 충북 등 전국 6개 권역 단지에 입주한 84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6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중 나주시 기업은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앞서 나주시는 선정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홍보를 실시하는 등 평가에 대비했다.

선정된 기업은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2%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뒷받침해 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함평 베르힐CC 진출입로 놓고 군-시행사 갈등

### 군·지역민 "함평 경유해야 지역경제 발전"...업체 "변경땐 공사 지연"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에 조성되는 베르힐CC 골프장의 진출입로를 놓고 함평군과 시행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함평군과 베르힐CC에 따르면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에 27홀 면적 160만 2995㎡(약 50만평) 규모의 베르힐CC 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 측은 지난해 9월 함평군에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같은 해 12월에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올해 1월에는 전남

도 도시계획(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 골프텔·골프빌리지) 심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출입로가 함평지역이 아닌 나주시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위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골프장 주 동선은 학교면과 대동면에 위치한 동함평IC가 아닌 나주 문평IC와 가깝게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이성의 함평군수도 동조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23일 '군민과의 대화'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은 군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절대 인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군수는 "골프장 설계도면 상 진출입로가 문평IC와 가깝게 되어 있다. 골프장은 함평에 있는데 경제 혜택은 나주가 보게 돼 있다"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동함평IC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출입로 변경 없이는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함평군의 입장인 것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골프장 진출입로 논란과 관련

해 사업자 측이 함평과 가까운 새로운 진입로 계획을 통보해 와 검토 중"이라며 "지역 여론과 민심 등을 꼼꼼히 살펴 문제가 해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진출입로의 변함은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수년간 이대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진입로 변경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진입로를 변경하면 설계 변경, 인가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장흥바이오산단에 조성

### 10월 착공 2023년 완공

장흥군은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를 장흥바이오산단 내로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스포츠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5곳으로 압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해 장

흥바이오산단 내 체육시설용지(23만5998㎡)로 최종 확정했다.

김길평 부지선정위원장(동아보건의대 교수)은 "입지 측면에서 국도 2호선, 산업단지 내 완료된 기반 시설, 확장 가능성에서 유리했다"며 "부지 매입 용이성과 저렴한 부지 가격, 군유지(8만946㎡) 포함 등 모든 항목에서 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시설이 노후화하

고 협소해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대상지 확정으로 공인 규격을 갖춘 운동장, 체육관, 보조 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160억 원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을 올해 10월 착공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준공 시기에 맞춰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총 700억~800억원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연차별·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서게 될 장흥바이오산단지. <장흥군 제공>

## 담양 명소 '국수의 거리' 10월까지 차없는 거리로

### 담양의 관광명소인 '국수의 거리'가 10월까지 차없는 거리로



담양의 관광명소인 '국수의 거리'가 10월까지 차없는 쾌적한 거리로 변모한다.

담양군은 지난 해부터 매년 4~10월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수거리 150m 구간의 차랑을 통제하고 있다.

관방제림을 따라 줄지는 담양 국수거리리는 오래 전 죽물시장을 찾은 상인이나 죽세공들이 형성한 거리다.

통제시간은 평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담양군 관계자는 "국수의 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통제 제한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안내판 설치 등 홍보를 통해 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